

전남도, 예방 중심 생활 속 인권 행정 본격화

4월까지 5개년 '3차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평가 확대 시행·인권확산 정책 추진

전남도가 예방 중심 인권 행정을 본격 추진, 도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인권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4월까지 향후 5년간 인권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전남도 인권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해 도민의 인권 보장과 인권 친화적 행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 로드맵이다.

이와 함께 기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운영한 인권영향평가제를 정책과 사업까지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

이는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제도다. 사후 구제 중심의 행정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는 핵심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인권 확산 정책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2026 민간단체 인권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인권교육, 인권 의식 개선 활동 등 공익적 인권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인권작품 공모전과 인권문화주

간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활 속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도민명예인권지킴이와 이장단 등 생활 현장 인권 리더 대상 교육을 신설하고 공직사회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도 집중 운영한다.

인권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인권감사 양성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70여명의 도 위촉 인권감사를 양성,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통해 도민 대상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인권보호 활동도 강화한다. 도 인권센터는 인권 침해, 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상담과 조사를 상시 운영하며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힘쓰고 있다.

찾아가는 도민인권보호관을 확대 운영해 현장 중심의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함으로써 인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 출연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예방 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병행 추진해 반복적·구조적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강종철 자치행정국장은 "인권은 사건 발생 이후에만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활 전반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 가치"라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 보호까지 이어지는 예방 중심 인권행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인권환경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광주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참여자 모집

매월 5-15일 방문 맞춤형 교육

광주시는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참여자를 5일부터 모집한다.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은 재난 발생 때 시민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안전 전문 강사가 신청자·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맞춤형 안전 교육으로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서류 심사, 공개 강의 시연 등 모집 과정을 거쳐 20명의 재난안전 전문강사를 선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매달 5일부터 15일까지며 다음 달 일정을 접수한다.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 '바로예약(교육·강좌)'에서 희망 교육 일시와 교육 분야를 선택하면 된다. 교육 분야는 일상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이다.



지난해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모습.

광주시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노인 등 대상별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안전인형극'을 함께 운영한다. 안전인형극 공연은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선착순 5개 팀에 한해 진행한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이 안전의 주체가 돼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교육의 목표"라며 "다양한 교육 과정을 지속 확대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안심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4일 국립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순천시 상생토크'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신산업 육성 동부권 산업구조 다각화"

광주시, 순천시 통합 상생토크

순천·여수·광양산단, AI 대전환 도약

姜시장 "광주·동부권 반도체 메가벨트"

광주시는 4일 국립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광주·전남 통합 순천시 상생토크'를 열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순천 등 전남 동부권 산업발전 방안을 지역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통합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처음 열린 상생토크이자 전남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한 7번째 상생토크다.

순천 상생토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순천

지역 기업인, 광주 전남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 추진 경과와 배경을 설명하며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이차전지산업 육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등 특별법 내용을 전남 동부권 산업과 연계할 청사진을 발표했다.

전남 동부권은 국가기간산업의 수명 주기 도래에 따른 산업 침체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육성해 기존 석유화학·제철 중심의 산업 구조를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전남 동부권 발전 전략으로 ▲광주권·동부권 연계 반도체 메가벨트 조성 ▲AI·반도체 인재 양성 사다리

확대 ▲이차전지 산업 육성 ▲광역교통망을 통한 1시간 생활권 조성 ▲중소도시형 통합돌봄 특구 지정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기업 지원 확대 필요성,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 방안,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잠재된 동부권 산업의 재도약 방안과 통합 이후 재정 행정 지원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동부권 산업 구조 전환으로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리면 사람이 모여드는 부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며 "통합 이후 광주·전남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며 '인(인) 광주', '(인) 전남'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도립도서관 이동도서관 '책책빵빵' 출발

해남 시작으로 7월까지 12개 군 순회

전남도립도서관이 독서문화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도서관 '책책빵빵'을 4일 해남 새하늘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

특히 올해는 이동도서관 차량을 신차로 구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며 아이들이 책과 더 깊이 소통할 아늑한 공간을 갖춰 전남 구석구석을 누비며 독서와 문화 향유 기회



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반기 운영은 오는 7월10일까지 12개 군, 46개소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방문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서 대출(1인당

최대 5권) ▲어르신이 직접 동화를 들려주는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농산어촌 어린이를 위한 DVD 영화 상영 등이다.

특히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프로그램은 책을 매개로 한 자연스러운 세대 간 소통은 물론, 여성 노년층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책책빵빵'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사항은 전남도립도서관 누리집 (<https://lib.jeonnam.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1-288-5216)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정기자

NH농협손해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3억 가입

특이청
상품등록: 제40-1007119호

나왔다!!! 마시는 씨알-렉스 PREMIUM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씨알-렉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효능·효과는 물지마세요!

주요성분

비수리(야관문), L-아르지닌, 아연, 마카, 복분자, 토사자, 오미자, 사상자, 산수유, 마늘 등

1박스-60,000원

남자한테 좋은데~

표현하기가~

※ 하루 한포면 충분합니다.

각 시·군 취급점 모집

주문 **080-374-5046 / 010-3738-8989** © 광주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람약품(주) 062)528-6664